

# ‘머무는 치유관광’ 생활인구 유입·지역경제 살린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 바다 걷기와 바다놀이, 슬로우 아웃 도어, 힐링 스테이, 전문 치유 스테이 등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완도의 바다, 숲, 섬 자원과 해양치유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 건강 회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해변 운동, 전복 등 완도 자원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완도 투어 등을 연계해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

## 완도군, 전국 최초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참가비 최대 70% 지원…“체류형 치유 모델 구축”

정이다.

군은 장기 체류에 따른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해양치유를 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참가비는 지원 금액을 반영해 1박 2일은 8만원, 5박 6일은 30만원이며, 해양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완도군과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가

능하며, 참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앞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약 4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 결과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해변 운동, 치유 식단, 완도 투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장애 개선,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확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

사진제공=완도군청

인됐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프

그램 운영 매뉴얼과 참가자 건강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완해 보다 완성도 높은 해

양치유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단순 관광 상품과는 차별화된 ‘머무는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함께 맨발 걷기 축제, 해양치유 관광 상품 운영 등이 관광객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해양치유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만의 청정한 해양과 산림, 기후 자원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장기 체류형 치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주민이 만든 관광콘텐츠...진도 미래 연다

## 관광두레, 신규 지역 주민사업체 2곳 선정

‘2026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에서 진도군의 ‘트루엔팜’과 ‘남도과 남미’가 최종 선정돼 기존 주민사업체 6개소에 이어 총 8개 주민사업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숙박과 식음, 체험, 기념품, 여행 분야를 아우르는 주민사업체들이 서로 연결돼 진도형 체류관광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신규 선정된 ‘트루엔팜’은 진도의 특산 자원인 자초를 활용한 막걸리 체험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고, 관광객이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체험이 특징이다.

함께 선정된 ‘남도과 남미’는 진도의 민속문화와 남아메리카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차별화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시장까지 확장이 가능한 지역관광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도 관광두레는 관광의 최근 유행 변화에 맞춰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소비형 관광’에서 ‘참여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주민사업체들은 진도의 바다와 섬, 민속문화,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생활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재해석하며, 관광객이 지역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진도 관광두레 제작자는 “이번 선정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사업체 간 연계와 협업을 바탕으로 진도만의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들은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며 진도만의 관광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주민사업체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참여자들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 강진,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

## 움천·한림상수도 공급망 확충...내년 신규 확보 총력

강진군이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 복지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6년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상수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움천면 좌척마을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은 지난 3월 특별교부세 9억원을 신청해 5월 확보함에 따라 하반기

기본적 시행하고, 지방상수도 관로 2.2km를 신설하는 병영 한림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도 8억원을 투자해 2026년 하반기 함께 추진해 농어촌 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2027년 신규 상수도사업으로 총 4개 사업,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강성지구 2단계 농어촌생수개방사업, 월남지구 2단계 농어촌생수개방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

망 구축사업, 부흥지구 농어촌생수개방사업이다.

군은 올해 움천면 좌척마을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병영 한림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 예산까지 확보되면 농어촌 지역의 식수난 해소는 물론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 개선,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 강화,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2026년 움천면 좌척마을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병영 한림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 영암, 통합사례관리 현장 의견 수렴

## 사례관리사 소통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사례관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재광 영암군 부군수와 양은숙 관광문화복지국장, 유미경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참석해 통합사례관리사들

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례관리 현장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례관리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재광 부군수와 양은숙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복합적 위기 가구와 이동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통합사례관리사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암형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문화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자산 규모 1조 6천 5백억원**  
창립 이후 33년 연속 흑자경영  
당기순이익의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자산**  
1조 6,562억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운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합니다.

고교2학년 ~ 대학졸업까지

**6년간 장학금 지원!**

15년간 총 누적 장학생 235명  
총 누적 지급액 2,430백만원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어부바플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결연업체 혜택

- ☑️ 업장 환경 개선
- ☑️ 필요물품 지원
- ☑️ 금융상담 및 대출

2022년~현재 결연업체 673곳

**광주문화신협 & 광주북구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시청과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완료



**보탬이 카드**

광주문화신협은 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상황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조사업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보조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본점 | 여신사업부 | 문흥지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림지점 | 동광주지점 | 각화지점 대표 번호 1644-7990